

정시 확대→불수능...광주 재수생 늘어난다

서울 주요대 40%대 확대 전망
학령 인구 감소도 재수 부추겨
벌써부터 “수능 다시 치르겠다”

정부가 정시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광주지역 교육계에서는 ‘재수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시 확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대입 경쟁률이 떨어질 게 뻔한 데다, 정시 확대에 의한 ‘불수능’ 가능성도 있어 재수를 택하는 수험생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광주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다음달 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교육부가 정시 확대 폭과 시기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교육 업계에서는 정부가 현재 고1 학생들이 대상인 오는 2022학년도부터 서울 주요 대학 15여 곳의 정시 비중을 40~45% 수준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리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만약 업계의 전망처럼 정부가 정시를 40~45%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시 비중이 높아진 상태에서 수능 문제를 쉽게 출제하면, 변별력을 확보할 수 없어 자칫 대입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서이다. 이처럼 수능이 어렵게 출제돼 이른바 ‘불수능’ 현상이 벌어질 경우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워진 수험생들이 재수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지난해 수능을 치렀던 당시 광주지역 고3 수험생들 가운데 재수를 택한 학생

이 늘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학교정보공시 사이트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지난 2월 광주지역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진로·진학 현황을 보면 대학입시에 재도전하는 재수생이 포함된 ‘기타’로 분류된 학생은 전년보다 1.3%포인트 증가한 15.6%를 기록했다. 2017년과 2018년 각각 14.4%, 14.3%를 기록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던 것과 달리 ‘불수능’ 이후 유독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광주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남구는 광주에서 진학률이 가장 낮음과 동시에 재수생을 포함한 기타로 분류된 학생 비율은 19.7%로 가장 높았다. 여기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경쟁 완화’에 대한 기대심리도 추후 재수를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19학년도 대학 입학 가능인원은 52만 6267명에서 2020학년도 47만 9376명으로 줄고, 2021학년에는 42만 893명까지 감소한다. 2024학년에는 37만 여명으로 급속히 감소해 경쟁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벌써 광주의 일부 사립고 1~2학년 학생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재수를 하고 수능을 다시 치러 정시를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광주의 한 사립고 교사는 “실력은 뛰어나지만 학교 내 경쟁이 치열해 내신이 뒤쳐지는 학생들은 정시확대를 반기고 있다”며 “정시 비중 확대와 학령인구 감소, 불수능이 맞물리면서 재수생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52 **달뜨기** 09:57
해질 17:40 **달짐** 20:13

청명한 10월의 마지막 밤
중국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광주	맑음	8/21	보성	맑음	4/21
목포	맑음	11/21	순천	맑음	9/23
여수	맑음	12/21	영광	맑음	5/21
나주	맑음	4/21	진도	맑음	8/21
완도	맑음	11/21	전주	맑음	8/22
구례	맑음	5/21	군산	맑음	8/21
강진	맑음	6/22	남원	맑음	5/21
해남	맑음	6/21	흑산도	맑음	14/21
장성	맑음	5/21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서~북서	0.5	서~북서	0.5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0	서~북서	0.5~1.0	
남해 앞바다	서~북서	0.5	서~북서	0.5	
남해 서부	면바다(동)	서~북서	0.5~1.0	서~북서	0.5~1.0
	면바다(서)	북서~북	0.5	북서~북	0.5~1.0

◇생활지수

☀	관심
☔	식중독
☀	보통
☀	자외선
👁	보통
👁	미세먼지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9:05 21:39	03:56 16:37

◇주간 날씨

11/1(금)	2(토)	3(일)	4(월)	5(화)	6(수)	7(목)
☀	☀	☀	☀	☀	☀	☀
12/21	10/20	11/20	9/20	9/20	8/20	9/19

광주학생독립운동 담은 보조교재 전국에 보급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회관은 “학생독립운동 90주년에 맞춰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역사 보조 교재〈사진〉을 발간해 전국에 보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실전처럼...안전한국훈련 30일 오전 광주시 북구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열린 경찰청 주관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경찰특공대가 테러범을 제압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 고교 방과후학교·‘야자’ 학생 선택권 향상

시민단체 실태조사 결과
방과후학교와 야간자율학습 등 광주지역 일반고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의 ‘정규교육 과정 외 교육활동 선택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본인 희망에 의한 방과후학교 참여율

은 2016년 58.9%에서 2017년 68.1%, 2018년 72.7%로 상승하는 추세다. 야간자율학습도 2017년 69.7%에서 2018년 74.3%로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이 향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은 강제적인 학습 선택을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개선을 요구한 교육·시민단체의 의견에 따라 2016년 12월 광주지역 모든 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와 야간자

율학습을 완전자율제로 바꾼 바 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이 개선되긴 했으나 여전히 부모와 교사의 권유, 주변 분위기에 못 이겨 방과후학교 등에 참여하는 경우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공휴일 자율학습 금지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있는 만큼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소아당뇨병 의료기기 구입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내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소아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 기기 구입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구입할 때 요양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아당뇨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질환으로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해

비만이나 노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인형 당뇨와 다르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부착되는 센서로 체내 혈당 변화량을 실시간 측정해 알려주는 기기다. 환자는 매번 바늘로 손가락을 찌러 피를 뽑지 않고도 혈당을 측정할 수 있다. 인슐린 자동주입기는 체외에서 속효성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해주는 기기다. 환자는 학교나 공공장소에서 혈당관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 중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 6.7대1

620명 선발에 4164명 접수
2020학년도 전남지역 중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평균 6.7대 1을 기록했다. 3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20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620명 선발에 4164명이 원서를 제출했다.

공립은 487명 선발에 3426명이 지원해 7대 1, 사립은 133명 선발에 738명이 지원해 5.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시험장소 등은 오는 11월 15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필기시험은 같은 달 23일 치러진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12월 31일 발표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062-412-2800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함평수목장
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